

강증산(姜甌山)의 중국신화 수용과 그 의미

정재서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 | | |
|-------------------------------|-----------------------|
| I. 서언(序言) | IV. 선양(禪讓) 신화의 비판적 수용 |
| II. 강증산(姜甌山) 탄생의 신화적 아우라 | V. 결어(結語) |
| III. 염제(炎帝) 신농(神農) 신화의 적극적 수용 | |

I. 서언(序言)

강증산 사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간 종교, 철학, 사상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 전모가 상당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방향은 기존의 논의를 심화하거나 전인미답의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후자와 관련하여 과거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관점은 강증산 사상의 의미 지평을 확대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강증산 사상을 서사와 상상력을 포괄하는 문학의 관점에서 구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신화는 인류 최초의 서사이자 원형적 상상력을 담지한 문학적 구성물로서 강증산 사상에 대한 신화학적 접근은 종래의 논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이른바 ‘달의 뒷면’과도 같은, 가려진 실체를 인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과를 보완, 인증

하는 망외(望外)의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의 신화학적 접근은 단순히 문학적 형상화의 탐구를 지향하지 않는다. 상상력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비롯한 정신활동의 총체로 규정하는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여 문학문화(Literary Culture) 나아가 사회, 역사, 사상, 물질적 성취 등을 포괄하는 문화학의 시좌(視座)에서 강증산 사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한 가지 부언할 것은 본고에서 강증산 사상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루게 될 신화적 상상력은 중국신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신화 곧 중국대륙의 신화는 원고(遠古)의 시절, 수많은 종족이 대륙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것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적인 기반이자 원천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강증산 사상의 신화적 근원을 탐색하는 일은 그것의 동아시아적 보편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논의의 와중에서 필요할 경우 도교적 상상력을 원용하여 분석할 것인데 사실상 중국의 상상계에서 신화와 도교는 연속 혹은 계승 관계에 있어서 양자가 무리 없이 병치(juxtaposition)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의 분석 텍스트는 대순진리회에서 출간한 『전경(典經)』이다. 이 책에 표현된 신화적 상상력은 위로는 황제(黃帝) 현원(軒轅), 염제(炎帝) 신농(神農), 태호(太昊) 복희(伏羲) 등의 대신과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등의 성군으로부터 우사(雨師), 조왕(寵王), 망량(魍魎) 등의 소신, 요괴에 이르는 다양한 신화적 존재들과 그들의 행사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내용을 귀납한 결과 우선 강증산 사상 형성에 비중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 염제 신농 신화와 선양(禪讓) 신화의 두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논구를 진행할 것이다.

II. 강증산(姜甌山) 탄생의 신화적 아우라

『전경』의 첫 장 개단부(開端部)는 강증산 탄생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화려하고 장엄한 신화적 수사로 장식하고 있다.

모친은 권(權)씨이며 휘는 양덕(良德)이니 이평면(梨坪面) 서산리에 근친가서 계시던 어느 날 꿈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그 뒤에 태기가 있더니 열석 달 만에 상제(上帝)께서 탄강하셨도다.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에 유달리 밝아지는 산실(産室)에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시니 방 안은 이상한 향기로 가득 차고 밝은 기운이 온 집을 둘러싸고 하늘에 뻗어 있었다.¹⁾

오토 랭크(Otto Rank)는 영웅신화의 요소로서 비범한 출생을 꼽고 있는데 강증산 탄생의 정황은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태기가 있더니 열석 달 만에 상제께서 탄강하셨도다.”라는 언급은 중국신화에서 위대한 신들이나 제왕의 탄생을 보편적으로 장식하는 감생신화(感生神話)를 상기시킨다. 감생신화는 여성이 신기한 현상에 감응하여 아기를 낳는 이야기이다. 가령 황제(黃帝) 탄생의 정황을 보자.

부보(附寶)가 큰 번갯불이 북두성을 감싸고 들녘을 비추는 것을 보더니 감응하여 잉태한지 25개월 만에 황제(黃帝) 현원(軒轅)을 수구(壽邱)에서 낳았다.
(附寶見大電光繞北斗權星，照郊野，感而孕，二十五月而生黃帝軒轅于壽邱.)²⁾

감생신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회임기간이 이례적으로 긴 것도 일치

1)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행록 1장 9절, 10절.

2) 『漢學堂叢書』에 수록된 『河圖稽命徵』.

한다. 아울러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신다는 이야기는 계승 관계에 있는 신화와 도교의 상상력이 자연스럽게 병치된 정경을 보여준다.

『전경』은 강증산의 탄생 장면에서 앞서 공간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신화적 수사로 가득 차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곳은 예로부터 봉래산(蓬萊山)·영주산(瀛洲山) 일명 신선봉(一名 神仙峰)·방장산(方丈山)의 세 산이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어 오던 곳이다. 방장산(方丈山)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望帝峰)과 영주산(瀛洲山)이 우뚝 솟으니 그 뒷기슭과 함께 선인포전(仙人布薩)을 이룩하고 있다. 이 시루산 동쪽 들에 객망리(客望里)가 있고… 객망리는 상제께서 탄강하시기 이전에는 선망리(仙望里)라 하더니 후에는 객망리라 하고 상제께서 화천(化天)하신 뒤로는 신월리(新月里)로 고쳐 부르고 오늘에 이르도다.³⁾

삼신산 신화는 전국시대 무렵 출현하여 후대에 도교 선향전설(仙鄉傳說)로 계승된다. 부사년(傅斯年)은 상고 시대의 중국 대륙이 동방의 동이계(東夷系) 종족과 서방의 화하계(華夏系) 종족이 대립된 정치, 문화적 형국을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⁴⁾ 화하계 종족의 낙원이 곤륜산(崑崙山)이라면 동이계 종족의 낙원은 삼신산(三神山)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고흥강(顧頡剛)은 중국신화를 곤륜신화와 봉래신화의 양대 계통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⁵⁾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의 기록에 의하면 삼신산은 발해(渤海)의 해도(海島)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강증산의 탄생 공간이 삼신산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면상 이는 강증산 탄생의 신화, 도교적 배경을 강조함

3) 『전경』, 행록 1장 2절-4절, 1장 7절

4) 傅斯年, 『夷夏東西說』, 정재서 역주 (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참조.

5) 顧頡剛, 「莊子和楚辭中崑崙和蓬萊兩個神話系統的融合」, 『中華文史論叢』(1979), 제2기 참조. 그러나 고흥강은 곤륜신화의 봉래신화로의 변천을 주장함으로써 화하계 신화에 근원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정재서, 『不死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1994), p.70.

으로써 그의 신성이 생래적이고 필연적임을 웅변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면에 보다 깊은 문화적 함의(含意)가 있다. 최근 강증산의 사적에 대한 논구는 그가 조선 단학과(丹學派)의 명인인 남궁두(南宮斗)와 권극중(權克仲)의 집안과 착종(錯綜)한 인척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⁶⁾ 아닌 게 아니라 강증산은 단학파의 태두(泰斗) 북창(北窓) 정렴(鄭濂)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정 북창(鄭北窓) 같은 재주로도 입산 삼일 후에야 천하사를 알았다 하느니라.⁷⁾

강증산과 단학파의 친연성,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로써 우리는 그의 배후에 드리워진 강한 선풍(仙風)의 실체에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 강증산의 사상 형성을 설명하는 데에 단학파의 역사의식, 문화사관이라는 중요한 소인(素因)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삼신산으로 돌아가서, 한반도에는 강증산의 탄생지 이외에도 삼신산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왜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가? 진시황(秦始皇) 때의 방사(方士) 서복(徐福)이 삼신산을 찾기 위해 한반도 연해 도서(島嶼)를 탐사한 여파로 보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단학파의 자생적, 주체적 입장과 관련이 있다. 다음 아니라 단학파에서는 삼신산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가령 정렴의 후손 정두경(鄭斗卿)은 금강산을 다음과 같이 예찬한다.

東海三神在, 동해의 삼신산이 이곳에 있으니,
中原五嶽低. 중원의 오악도 낮아 보인다.
群仙爭窟宅, 뭇 신선들 자리 잡고 싶어 안달이니,
王母恨居西. 서왕모도 서쪽에 거주함을 한탄하리.⁸⁾

6) 김성환, 「한국 선도의 맥락에서 보는 증산사상」, 『대순사상논총』 20 (2009), pp.327-330.

7) 『전경』 교운 1장 35절.

삼신산이 조선에 존재한다고 자부하고 중국의 오악이나 곤륜산이 부럽지 않다는 단학파의 주체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반도의 도처에 존재하는 삼신산은 단학과 곧 한국 선도의 이러한 인식과 상관이 있다. 삼신산 이외에도 강증산의 탄생, 행적과 관련된 공간에는 선망리(仙望里), 학선암(學仙庵), 회선동(會仙洞), 피노리(避老里), 와룡리(臥龍里), 회룡리(會龍里), 용암리(龍岩里), 비룡촌(飛龍村) 등 신화, 도교적 상상력에서 유래한 지명이 술하게 출현한다. 그 이유는 강증산 탄생지 혹은 그 인근이 단학파의 주요 인물들을 배출한 선풍이 강한 지역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권에서 억압된 한국 선도가 오히려 민간에 널리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살펴보아야 할 지명은 시루산 곧 증산(甞山)이다. 시루산은 강증산의 아호(雅號)가 될 정도로 그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명인데 실제로 강증산은 이 산에서 한동안 중요한 수련을 행하였다. 『전경』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상세하다.

상제께서三年 동안 주유하신 끝에 경자(庚子)년에 고향인 객망리에 돌아오셔서... 이후에 상제께서 항상 시루산 상봉에서 머리를 푸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둔하고 앉아 계셨을 때 마침 나무꾼들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기겁하여 상제의 부친께 아뢰는지라. 부친께서도 당황하여 시루봉에 오르니 뱀은 보이지 않고 상제께서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만이 보였도다. 상제께서는 객망리 시루봉에서 공부하시다가 밤이 되면 간간이 유 덕안의 집에 내려가셔서 쥐눈이콩 한 줌을 얻어 냉수와 함께 잡수시곤 하셨도다. 상제께서 덕안의 아들 칠룡(七龍)을 바라보시고 “네가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구나”고 말씀하셨느니라. 상제께서 시루봉에 오르면 산천이 크게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셨도다. 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두려워 문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도다. 상제께서 시루산에서 공부하시다가 이따금 산 밑에 있는 샘터 너머

8) 鄭斗卿, 『溫城世稿』 「金剛山」.

에서 우시기도 하셨는데 한번은 부친께서 밥을 가지고 시루봉에 오르다가 그 광경을 보았도다. 그러시다가도 다시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시루봉에서 진법주(眞法呪)를 외우시고 오방신장(五方神將)과 四十八장과 二十八장 공사(公事)를 보셨도다.⁹⁾

시루산은 강증산의 고향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처에 있는 지명이다. 이것은 시루의 형상을 한 산이 어디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도 이와 같은 지명이 보인다. 다만 강증산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산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경(丹經)의 원조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루산에 올라가 볏으니 뜨거운 불이 펼쳐져 내려오고 백호가 앞에서 이끄니 청룡이 뒤에서 호응한다.
(升熬於甌山兮, 炎火張設下. 白虎倡導前兮, 蒼龍和于後.)¹⁰⁾

체내의 기를 순환시키고 단련하는 과정을 노래한 이 구절에서 시루산 곧 증산은 실제 지명이 아니라 수련의 한 현상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였다. 강증산은 당연히 자신의 중요한 수련 장소인 시루산에서 아호를 취했을 것이지만 그는 중국의 도경(道經)에 정통해 있었던 만큼 『주역참동계』의 시루산을 의식하지 않았을 리 없고 따라서 증산이라는 아호는 중의적(重義的)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다분하다.¹¹⁾ 다시 말해 아호 증산은 그의 고향 산임과 동시에 선도 수련의 지극한 경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9) 『단경』 행록 2장 7-10절.

10) 魏伯陽, 『周易參同契』, 下卷.

11) 이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약론한 바 있다. 정재서, 「한국 도교의 고유성, 철학·종교연구실 편 『한국 전통사상의 특성 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참조.

Ⅲ. 염제(炎帝) 신농(神農) 신화의 적극적 수용

『전경』에는 많은 중국신화상의 신들이 등장한다. 이 중에서 강증산은 특별히 염제 신농을 거론하여 독보적 지위를 부여한다. 『전경』의 모두(冒頭)에서는 우선 강증산이 신농의 후예임을 천명한다.

강(姜)씨는 상고 신농씨(神農氏)로부터 시작되고 성(姓)으로서는 원시성이로다... 시조(始祖) 이식으로부터 三十一대 자손 세의(世義)가 고부(古阜)로 낙향한 후 六대에 진창(晉昌)·우창(愚昌)·응창(應昌) 삼 형제도 이곳에 살았도다.¹²⁾

신농이 강씨의 시조라는 설은 이미 『사기(史記)』에 보인다.

염제 신농씨는 강씨(姜氏) 성이다. 어머니는 여등(女登)이라 하고 유와씨(有媧氏)의 딸로 소전(少典)의 비가 되었다. 신령스러운 용을 보고 감응하여 염제를 낳았는데 사람의 몸에 소머리였다. 강수(姜水) 가에서 성장하여 그것으로 성을 삼았다. (炎帝神農氏, 姜姓. 母曰女登, 有媧氏之女, 爲少典妃. 感神龍而生炎帝, 人身牛首. 生于姜水, 因以爲姓.)¹³⁾

강증산은 그가 신농의 후예로서 세상을 개혁시킬 소임을 맡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신년 四월 어느 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풍신(風身)·풍골(風骨)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혁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¹⁴⁾

12) 『전경』, 행록 1장 1절.

13) 『史記』, 「補三皇本紀」.

최초에 출현한 풍성의 시조는 곧 태호(太昊) 복희(伏羲)이다. 복희가 수렵시대의 신이라면 신농은 농업시대의 신이니 강증산은 신들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존하는 강씨가 사실상 성의 시원(始原)으로서 대업(大業)을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강증산은 공사 수행 과정에서 오방(五方)의大神(大神) 중 신농을 각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월 어느 날 김 보경의 집에서 공사를 행하시는데…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사명당(四明堂)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 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佛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혈(胡僧禮佛穴)이오.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선술(仙術)에 있으니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이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군신봉조혈(群臣奉詔穴)이오.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六월 十五일 신농씨(神農氏)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捍門)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¹⁴⁾

조화와 무병장수, 국태민안과 비단옷의 공사를 행함에 강증산은 먼저 신농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기원한다. 이외에도 주문에 신농패(神農牌)라 쓰는 등 신농을 특별히 거론하였다.

강증산이 이처럼 신농을 증시하는 것에는 그가 신농의 후예이고 강씨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이기 때문이라는 표면상의 이유 말고 다른 설명의 여지는 없는 것일까? 우선 신농은 엄제라는 호칭에서 암시하듯이 불의 신 곧 화신(火神)의 성격을 지녔다. 이것은 그가 최초의 농업 형태인 화전(火田)을 창안하여 농업신의 영예를 얻은 것과 상관된다. 우국경(于國慶)은 신농이 태양신 혹은 뇌신(雷神)의 성격을 지

14) 『전경』, 행록 4장 17절.

15) 같은 책, 행록 5장 15절.

닌 것으로 간주하고 강증산 모친의 태몽에 큰 불덩이가 나타났다면가 강증산이벼락의 신 곧 뇌신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현상을 들어 강증산과 신농의 공통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강증산이 구현하고자 하는 지상선경이 신농이 이룩한 태초의 이상사회를 재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강증산이 신농을 애호하는 내면의 이유를 제시하였다.¹⁶⁾

신의 성격, 기능과 관련한 이러한 분석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상고 대륙의 신들은 수많은 종족의 흥망성쇠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성격과 기능만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투명한 신화적 실체가 아니다. 특히 각 지역의 대신과 관련된 신화는 종족적 고유성과 그것에 수반한 다양한 정치성을 함유하고 있다. 우리는 남방의 대신인 신농의 이러저러한 사연을 탐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강증산과 어떤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더 궁구(窮究)해보아야 한다.

신농은 본래 동방의 신으로 농업과 의약을 발명하여 인류에게 혜택을 준 자비로운 신이었으나 판천(版泉) 싸움에서 황제에게 패하여 남방으로 쫓겨간다. 신농의 후에 치우(蚩尤)가 이를 설원(雪冤)하기 위해 황제와 벌인 싸움이 중국신화상의 일대사건인 탁록대전(涿鹿大戰)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농은 동방 혹은 남방에서 숭배를 받았는데 다음의 기록으로 미루어 부여, 고구려와는 종족적 친연관계가 있음이 인지된다.

오랑캐인 부여국이 있는데 성이 열씨(烈氏)이며 기장을 먹고 산다.
(有胡不與之國, 烈姓, 黍食.)¹⁷⁾

16) 于國慶, 「大巡眞理會九天上帝信仰與道教普化天尊信仰比較研究」,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180-183.

17) 『山海經』 「大荒北經」. 번역은 정재서 역주, 『산해경』 (서울: 민음사, 1985)에 의거함.

‘불여(不與)’는 곧 ‘부여(夫餘)’이고¹⁸⁾ 성이 ‘열(烈)’씨인 것은 신농의 후예임을 말한다.¹⁹⁾ 부여의 후신인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사람의 몸에 소머리를 한 신농이 세 번이나 출현하는 것은 고구려에서 신농을 얼마나 숭배했는가를 보여준다.

본래 동방의 신으로서 서방의 황제에게 방축된 신농의 후예로는 치우, 형천(刑天), 공공(共工), 후토(后土), 과보(夸父)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황제 혹은 황제의 후예인 전옥(顛頊) 등에게 패배하여 변방이나 지하세계의 신으로 좌절하게 된다. 부여, 고구려 등 동이계(東夷系) 종족과 친연관계에 있는 신농과 그 계열의 신들은 다시 말해 대륙 신계의 패배자이고 한을 품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전신은 무엇인가? 그는 서방 주(周) 민족에 의해 멸망당한 동방 은(殷) 민족의 충신으로서 한을 품고 죽은 태사(太師) 문중(聞仲)이다. 다시 말해 신농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셈이다. 신농의 후예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격이기도 한 강증산은 바로 이러한 포한(抱恨)의 계층을 대표한다. 그러나 그는 치우처럼 설원(雪冤)의 차원이 아닌, 해원(解冤)의 공사를 펼치고자 탄생했다는 점에서 신화적 영웅이 아닌, 새로운 종교적 획을 그은 존재로 기록된다.

IV. 선양(禪讓) 신화의 비판적 수용

강증산 공사의 중요한 조성부분인 해원(解冤) 공사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신화적 인물이 요의 아들 단주(丹朱)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단주 신화를 해원 공사의 전제 혹은 근거로서 다루었으나 단주 신화

18) 정인보, 「고조선의 大幹」 『담원정인보전집(3)』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p.61.

19) 郝懿行, 『山海經箋疏』, 有胡不與之國條, “懿行案, 烈姓蓋炎帝神農之裔.”

자체는 물론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선양 신화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가해져야만 강증산의 신화 수용이 얼마만한 깊이와 넓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실체를 구명(究明)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단주는 요(堯)에서 순(舜)으로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배제된 인물로 이 사건에 대해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²⁰⁾

강증산은 해원 공사를 결행함에 있어 인류 원한의 단초가 되는 단주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대체 단주는 어떠한 인물인가? 『세본(世本)』에서는 그가 요의 정실 아들임을 말한다.

요가 산의씨(散宜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를 여황(女皇)이라고 한다. 여황이 단주를 낳았다.
(堯取散宜氏之子，謂之女皇。女皇生丹朱.)²¹⁾

요가 바둑을 만들었는데 단주가 그것을 잘하였다.
(堯造圍棋，丹朱善之.)²²⁾

20) 『전경』, 공사 3장 4절.

21) 『世本』, 「帝系」.

22) 『世本』, 「作篇」.

처음에 요와 단주 사이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단주는 점차 요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하는데 『서경(書經)』에서는 단주의 품성과 행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단주처럼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직 놀기만을 좋아하며, 거만하고 포악한 짓만을 하길 밤낮 끊임없고, 물이 없는 곳에도 배를 띄우며 때를 지어 집안에서 음탕하게 놀아, 그의 후손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無若丹朱傲, 惟慢惟是好, 傲虐是作, 罔晝夜額額. 罔水行舟, 朋淫于家, 用殄厥世.)²³⁾

임금이 된 순에게 신하인 우(禹)가 반면교사로서 단주의 예를 들어 간언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탐학(貪虐)했던 단주는 결국 신임을 잃고 순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된다. 『孟子』에 의하면 그 상황은 이렇다.

요가 붕어(崩御)하고 3년 상이 끝나자 순은 요의 아들을 피하여 남하(南河)의 남쪽으로 갔다. 왕을 뵙고자 하는 온천하의 제후들은 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고 송사(訟事)를 하는 사람들은 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으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요의 아들을 노래하지 않고 순을 노래했다.
(堯崩, 三年之喪畢, 舜避堯之子于南河之南. 天下諸侯朝覲者, 不之堯之子而之舜. 訟獄者, 不之堯之子而之舜. 謳歌者, 不謳歌堯之子而謳歌舜.)²⁴⁾

결국 왕위계승에서 밀려난 단주는 방축되거나 살해되는 등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된다. 여러 전적(典籍)에서의 기록이 이를 증언한다.

요의 아들이 불초하여 순이 단연(丹淵)에 살게 하고 제후로 삼았는데 그래서 단주라고 부른다.
(堯子不肖, 舜使居丹淵爲諸侯, 故號曰丹朱.)²⁵⁾

23) 『書經』, 「益稷」(서울: 평범사, 1976), 권덕주·전인초 역주, pp.106-107.

24) 『孟子』, 「萬章(上)」.

25) 『太平御覽』 卷63에 인용된 『尚書逸篇』.

요가 장자인 단주를 죽였다.
(堯殺長子)²⁶⁾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단주는 비록 요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자질이 열악(劣惡)하여 왕위계승에서 배제되고 훌륭한 덕성을 지닌 순이 요로부터 왕위를 양도받는 선양(禪讓)이 이루어진다는 신화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라면 단주의 불행은 당연한 귀결이고 동정 받을 여지가 없는 만큼 그가 원통해서 깊은 한을 품었으리라는 추측은 무언가 상리(常理)에 맞지 않는다. 강증산은 왜 파멸을 자초한 단주를 한의 화신으로 보았으며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단주 신화의 이면에 어떠한 정치성이 내재해 있는지 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뜻밖에도 중국문화의 정체성 또는 그 허구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로 향할 가능성을 지닌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믿어왔던 태고의 성세(盛世), 이른바 요순시대의 정치적 특징은 요에서 순으로, 다시 순에서 우로 사이 좋게 왕권을 넘겨주었다는 선양이라는 제도이다. 비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이 정치 신화는 요순시대야말로 이상적인 정치가 구현된 태평성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고대부터 선양제에 대한 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가 사상가들과 당대(唐代)의 사학자 유지기(劉知幾), 청말(清末)의 개혁가 강유위(康有爲) 등이 이것의 실재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였고 급기야 근대 초기에 이르러 의고파(疑古派) 사학자 고힐강(顧頡剛)이 목가와 유가에 의해 조작된 신화로 규정함으로써 이후 선양제는 학문상의 일대 쟁점이 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²⁷⁾

세계 각국 신화의 일반적 정황에 비추어 고대의 권력교체는 폭력을

26) 『莊子』, 「盜跖」.

27) 선양제를 둘러싼 논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정재서, 「선양인가? 찬탈인가?」, 『양피 오이디푸스의 신화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2010), pp.102-105 참조.

수반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선양제는 허구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중국의 일부 전적에도 보인다. 가령 『죽서기년(竹書紀年)』에서는 요-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요의 덕이 쇠하여 순에게 유폐되었다. 순은 요를 유폐하고 다시 단주를 연금시켜 부자가 서로 보지 못하게 했다.
(堯德衰爲舜所囚。舜囚堯，復偃塞丹朱，使父子不得相見也。)²⁸⁾

결론적으로 선양제의 실상은 순의 요에 대한 폭력적 정권 교체이나 고대의 이상적인 통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시대의 목가 혹은 한대(漢代)의 유가에 의해 신화 조작(myth making)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주가 탐학했다는 기존의 속설은 순의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어진 억울한 누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주가 왜 깊은 원한을 품고 죽었는지, 강증산이 왜 특별히 단주의 원한을 거론했는지 의문이 풀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왜 강증산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주의 존재를 제기한 것일까? 모두가 순의 미덕을 칭송하고 있을 때 강증산은 돌연 선양신화의 초점을 패배자인 단주에게로 돌린 것이다. 중국 상고문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전회(轉回)가 강증산의 경우,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 그 해답은 서론에서 이미 주어져 있다. 강증산이 조선 단학과와 깊은 연원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 말이다.

대륙의 초기 문명 상황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이 증명하듯이 다원적, 탈중심적 상태이었으나 전국 말기 및 한대에 이르러 대일통(大一統)의 기운이 농후해지고 중국의 문화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체계화, 정합화의 길을 걷는다. 선양 신화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정두경의 「금강산 시에서도 보이듯이 반존화적(反尊華的),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견지한 단학파는 중국 상고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중

28) 『史記』, 「五帝本紀正義」에 인용된 『竹書紀年』.

원 중심의 체계적, 구조적 문화사관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륙의 초기 문명에 대한 유전된 기억을 바탕으로 후대의 중국에서 성립된 이른바 정통 문화사관을 회의와 균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은 이단의 기서(奇書)이자 동이계(東夷系) 고서로 일컬어지는 『산해경(山海經)』에서 일찍이 보인다.

창오산(蒼梧山)은 순 임금의 남쪽에, 단주 임금을 북쪽에 장사지낸 곳이다.
(蒼梧之山, 帝舜葬于陽, 帝丹朱葬于陰.)²⁹⁾

제요대(帝堯臺), 제곡대(帝嚳臺), 제단주대(帝丹朱臺), 제순대(帝舜臺)는 각각 두 개의 누대인데 누대는 네모졌으며 곤륜(崑崙)의 동북쪽에 있다.
(帝堯臺帝嚳臺帝丹朱臺帝舜臺, 各二臺, 臺四方, 在崑崙東北.)³⁰⁾

『산해경』에서는 정통 관념을 좇아 단주를 비난하거나 폄훼하지 않는다. 오히려 왕이 되지 못한 단주의 이름 위에 ‘제(帝)’를 덧붙여 불행한 세자를 임금으로 추존(追尊)한다.

중원의 패배자 단주에 대한 강증산의 각별한 관심은 『산해경』, 『죽서기년』 등 반유가적, 비정통적 관념을 담은 선진(先秦) 고서의 문화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단학파의 선양 신화에 대한 수정주의적 관점과 깊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리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강증산은 단주를 중국 왕조시대 최초의 루저(loser)로 규정하였으나 그 원한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주론적, 인과론적으로 재해석하여 해원 곧 인류적 차원에서의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29) 『산해경』, 「해내남경」.

30) 『산해경』, 「해내북경」.

V. 결어(結語)

본고에서는 대순진리회에서 간행한 『전경』을 텍스트로 삼아 강증산이 그의 종교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신화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염제 신농 신화와 선양 신화(곧 단주 신화)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강증산의 탄생과 관련된 신화를 살펴보았을 때 감생신화의 요소가 농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동아시아의 영웅 탄생 신화에서 보편화된 모티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강증산 활동의 공간적 배경을 분석해 본 결과 신화, 도교적 이미지와 관련된 지명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강증산 탄생지 혹은 그 인근이 단학파의 주요 인물들을 배출한 선풍이 강한 지역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권에서 억압된 한국 선도가 오히려 민간에 널리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강증산의 아호인 증산은 그의 수련처인 시루산과 『주역참동계』의 수련 경지를 중의적으로 함축하고 있어 흥미롭다.

다음으로 강증산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된 염제 신농 신화를 살펴 보았다. 강증산은 그의 가계 근원을 신농에 두고 있는데 신농은 부여, 고구려 등 동이계 종족과 친연관계에 있으며 그 계열의 신들은 대륙 신계의 패배자이고 포한(抱恨)의 존재들이다. 아울러 화신 신농과 신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뇌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전신은 은의 태사 문중으로 역시 주에 의해 패사(敗死)하여 봉신(封神)된 존재이다. 강증산이 신농의 후예를 자임(自任)하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격을 구유(具)했다는 사실은 그가 은 및 동이계 종족 등 포한의 계층을 대표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강증산은 포한 곧 르상티망(ressentiment)을 종족적 차원에서의 설원을 넘어 해원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종교적 획을 긋는다.

끝으로 강증산에 의해 비판적으로 수용된 선양 신화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양 신화에 의하면 단주는 불초하여 왕위계승에 실패하고 홀

를한 덕성을 지닌 순이 요의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양 신화의 실상은 폭력적인 왕권교체로 단주는 그 과정에서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강증산은 예리하게 상고 중국의 현실을 포착하여 패배자인 단주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해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의 이러한 문화인식은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정통의 중국문명사관에 대해 회의의 눈길을 보내는 반존화적, 주체적인 단학파의 수정주의적 관점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강증산은 단주의 원한을 우주론적, 인과론적으로 재해석하여 해원 곧 인류 보편의 구원 신학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신농 신화의 수용과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강증산의 중국신화 수용은 주체적이고 선별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화 하는 전유(專有)의 과정을 통해 고유한 종교적 의미를 산출하는 창조적인 재해석의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孟子』

『史記』

『山海經箋疏』

『世本』

『莊子』

『周易參同契』

『竹書紀年』

『太平御覽』

『산해경』, 정재서 역주, 서울: 민음사, 1985.

『서경』, 권덕주·전인초 역주, 서울: 평범사, 1976.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출판부, 2010.

정낙훈 편, 『溫城世稿』

김성환, 「한국 선도의 맥락에서 보는 증산사상」, 『대순사상논총』 20, 2009.

于國慶, 「大巡眞理會九天上帝信仰與道教普化天尊信仰比較研究」, 『대순사상논총』 21, 2013.

이경원, 「대순진리회의 상생이념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13, 2005.

傅斯年, 『夷夏東西說』, 정재서 역주, 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정인보, 『담원정인보전집(3)』,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정재서, 『不死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1994.

_____, 「한국 도교의 고유성」, 『한국 전통사상의 특성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_____, 『양띠 오이디푸스의 신화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2010.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解冤結’과 대순진리회의 ‘解冤相生’ 비교연구」, 『종교연구』 65, 2011.

詹石窓, 「大巡典經的公事考論」, 『대순사상논총』 23, 2014.

顧頡剛, 「莊子和楚辭中崑崙和蓬萊兩個神話系統的融合」, 『中華文史論叢』, 1979, 제2기.

▪Abstract▪

Kangjeungsan(姜飴山)'s Embrace of Chinese Myth and It's Meaning

Jae-Seo Ju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took *Jeonkyeong*(典經) of Daesunjinrihoe(大巡眞理會) as the basic text and studied how Kangjeungsan(姜飴山), the Sangje(上帝), had embraced Chinese myth in process of formation of his religious thought focusing on Yan Emperor(炎帝) Shennong(神農) myth and Shanrangang(禪讓) myth (namely Danchu myth).

First when we examine the myth surrounding Kangjeungsan's birth, it deeply embraced a feeling-birth myth(感生神話), we could realize that this is a universe motif through myth of hero birth in East Asia. Further judging from the analysis of geographic space of Kangjeungsan's activity, it included a variety of mythical and Daoist related place names. I think this is because of the fact that birth place of Kangjeungsan and the surrounding area is the locality of Xian(仙) tradition where major characters of Danhak sect(丹學派) have been turned out, and that Korean way of Xian suppressed by the regulatory system has been widely rooted in the public. Especially it's interesting that Jeungsan, the pen name of Kangjeungsan, ambiguously connotes Siru mountain(飴山), a place

of his training, and the spiritual realm of the 『Zhouyicantongqi(周易參同契)』.

Then I examined the God of fire Shennong myth which has been actively admitted and embraced by Kangjeungsan. Kangjeungsan put the root of his pedigree on Shennong and there is a close affinity between Shennong and Dongyi(東夷) such as Buyeo(夫餘), Goguryeo(高句麗), etc. These Dongyi spirits are losers against the Chinese major myth and beings of resentment. At the same time the predecessor of Jiutianyingyuanleishengpuhuatiansun(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who shares mythical characteristics with the God of fire Shennong was a formerly Taishi(太師) Wenzhong(聞仲) of Yin(殷) dynasty. He was defeated and died by Zhou(周) dynasty, and was deified. The fact that Kangjeungsan regarded himself as a descendent of Shennong and possessed divinity of Jiutianyingyuanleishengpuhuatiansun connotes that he represents all beings of resentment such as family of Yin and Dongyi. However, Kangjeungsan set a religious milestone by turning revenge for such resentment at tribe level into religious sublimation.

At the end Shanrang myth which has been critically embraced by Kangjeungsan was reviewed. According to the existing Shanrang myth, Danchu(丹朱) was unworthy and not succeeded in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Then good natured Emperor Shun(舜) succeeded to the throne from Emperor Yao(堯). However, the reality of Shanrang myth was a violent change of sovereign power and Danchu was a victim in the process of such violent change. Kangjeungsan shrewdly grasped the reality of ancient China and cast light on presence of Danchu. And he emphasized the need of religious sublimation of revenge, Haewon(解冤). His such awareness of culture had a close

relation with revisionist standpoint of independent Danhak sect expressing a skeptical glance at systematic, commensurate and authentic historical view of Chinese civilization. And further Kangeungsan cosmologically and causationally reinterpreted revenge of Danchu. He established a universal salvation theology which has a corresponsive connotation in regard to embracement of Shennong myth.

In conclusion, embracement of Chinese myth by Kangeungsan was a creative work of reinterpretation resulting in an inherent religious connotation through a process of appropriation, that is independent and selective introjection.

Key words : Kangeungsan(姜靛山), *Jeonkyeong*(典經), Daesunjinrihoe (大巡眞理會), Shennong(神農), Dongyi(東夷), Shanrangang (禪讓), Danchu(丹朱), Danhak sect(丹學派), Haewon(解冤), resentment

◎ 투 고 일 : 2015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5년 7월 24일~8월 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10월 6일